

을미의병기 호좌의진湖左義陣과 영남 의진의 연대와 태봉胎峯 전투*

구완회**

1. 머리말
2. 호좌의진과 영남 의진의 접촉
3. 안동의진의 재정비와 소토진의 구성
4. 예천 회맹과 태봉 전투
5. 맺음말

요 약 문

호좌의진湖左義陣과 영남의 여러 의진의 연합은 피차가 곤경을 벗어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특히 봉기 직후에 경군京軍에게 패하면서 침체를 겪던 안동의진예안의진 등이 충청도와 강원지역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던 호좌의진에 도움을 청하면서 본격적인 연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 활동하던 호좌의진의 소토장 서상렬이 영남으로 내려와 예

* 이 논문은 세명대학교의 2012학년도 교내학술연구과제로 작성한 것임.

** 具玩會, 세명대학교

천에서 일곱 고을의 의진을 모아 의병투쟁을 맹약하면서 예천회맹(體泉會盟)이 추진되었다.

예천회맹이 이뤄지면서 친일적 지방관을 처단하는 호좌의진의 강경한 투쟁방식이 영남 쪽에서도 이뤄졌다. 그러나 연합의진을 총동원하여 추진한 태봉전투에서 패하면서 연합 투쟁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훈련받지 못한 의병들, 회맹을 전후하여 이뤄진 영남쪽 의진의 지도체제 변동, 정교하지 못했던 의진간의 연합작전 등이 패전의 원인이었다.

이러한 검토의 과정에서 ① 지역적 조건을 달리하는 의진 사이의 연합 배경, ② 연대의 핵심 주체였던 안동의진과 소토진 구성의 변화 모습, ③ 전투의 구체적인 현장, ④ 호좌의진에 패배의 원인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기존 연구의 착오 등을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의병, 호좌의진, 서상렬, 안동의진, 예안의진, 태봉전투, 예천회맹

1. 머리말

태봉(胎峯) 전투는 을미의병기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전투였다. 그리고 그것은 호좌의진(湖左義陣)의 간부인 서상렬(徐相烈)(1854~1896)이 영남으로 내려가서 영남 일곱 고을의 병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일본군과 맞섰던 전투이기도 했다. 이처럼 태봉 전투는 특정한 근거지를 중심으로 시위의병적 성격을 가진 을미의병의 일반적 모습과 달리, 지역을 초월하여 연대를 이루고 격렬한 전투까지 수행하였다는 점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⁴⁰²⁾

지금까지 태봉 전투는 주로 영남의 의병사에서 언급되었다. 연대와 투쟁의 무대가 영남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권대웅이 예천 회맹(會盟)과 태봉 전투에 대해

402) 조동길, 「안동연합의진, 김도화의 태봉전투」, 『경향신문』 1989년 5월 2일; 권대웅, 「을미의병기 경북 북부지역의 예천회맹」, 『민족문화논총』 14, 1993.

여 개척적인 연구를 수행했고, 김상기도 안동의병을 검토하면서 태봉 전투에 대해 자세히 검토했다.⁴⁰³⁾ 그 결과, 안동의병 내부에 병호시비(屏虎是非)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 것까지도 밝혀졌으며,⁴⁰⁴⁾ 연구 과정에 여러 자료가 새로 발굴되었다.⁴⁰⁵⁾ 특히 최근에는 서상렬의 영남 활동에 초점을 맞춘 권대웅의 연구까지 나와 연구의 공백을 채웠다.⁴⁰⁶⁾

호좌의진의 소토진(召討陣)이 남하한 이유에 대한 기왕의 설명은 대체로 셋으로 나뉘볼 수 있다.⁴⁰⁷⁾ 예전 회맹에 대하여 검토한 권대웅은 호좌의진이 ‘영남 지방 재지사족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위정척사(衛正斥邪)적인 사상의 뿌리가 공고’하였던 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면을 지적했고,⁴⁰⁸⁾ 구완화는 충주성을 장악한 이후 일본군과 관군의 공세에 맞서 곤경에 처하였던 호좌의진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⁴⁰⁹⁾ 김희곤은 충주성을 장악한 호좌의진이 낙동-태봉-수안보를 거쳐 청주로 이어지는 일본군의 병참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동작전을 시도한 결과로 이해하였다.⁴¹⁰⁾ 이러한 설명들은 엄밀한 고증을 거친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합리적인 해석으로 여겨진다.

403) 김상기, 「1895~1896년 안동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항일투쟁」, 『사학지』 31, 1998.

404) 권대웅, 「을미의병기 안동유림의 의병투쟁」, 『대동문화연구』 36, 2000.

405) 그간 발굴된 중요한 자료로는 이궁연의 『乙未義兵日記』, 금석주의 『일기』, 김정섭의 『日錄』, 권제녕의 『義中日記』 등이 있으며, 국가보훈처, 『한말의병일기』(2003),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인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선인, 2013) 등의 국역서가 출간되어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역이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인용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번역하였다.

406) 권대웅, 「을미의병기 호좌의진의 영남지방 활동」, 『지역문화연구』 7, 2008. 한편 그간의 연구 성과는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에서 펴낸 『경북독립운동사 I』(영남사, 2012)로 종합되었다. 여기서 전기의병 편은 권대웅이 집필하였다.

407) 소토진은 ‘召募討賊陣’의 준말이며, 호좌의진의 지휘하에 있었으므로 ‘호좌소토조직’ 또는 ‘호좌소토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구완회, 「한말의 의병장 정암 서상렬의 생애」, 『지역문화연구』 12, 2013, 62쪽 각주87).

408) 권대웅, 「을미의병기 경북 북부지역의 예천회맹」, 64쪽. 이러한 견해는 별다른 검토 없이 이후의 연구에 받아들여졌다. 권영배, 『안동 지역 의병장 열전』, 지식산업사, 2012, 62~63쪽.

409) 구완회,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108쪽.

410) 김희곤, 「서산 김홍락(1827~1899)의 의병항쟁」, 『한국근현대사연구』 15, 2000, 19쪽.

그러나 기왕의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첫째, 호좌의잔영남의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영남의 의병사를 서술하는 관점에서 연구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영남 쪽 의진과 호좌의진, 또는 소토진의 만남에 대하여는 호좌의진의 ‘의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지역적 배경을 달리하는 호좌의진과 영남의 여러 의진이 어떻게 결합했는가와 관련하여 양측의 입장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¹¹⁾ 둘째, 연대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남 북부권의 의진들, 특히 이들을 대표하는 안동의진과 소토진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예천 회맹의 결과로서 추진되는 태봉 전투와 관련하여 전투의 현장에 대한 미흡한 설명을 보완하고, 그간 자료를 잘못 이해하여 왔던 부분에 대한 교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호좌의진과 영남 의진의 접촉

1) 의병 봉기 초의 상황: 을미년 12월 초~중순

을미년 12월 초, ‘제천의진’과 영남 지역의 의진들은 나름대로 기세 좋게 출발하였다.⁴¹²⁾ 지평 출신의 포군을 기반으로 원주의 안창에서 봉기한 의진은 제천에

411) 이런 면에서 근년에 권대웅은 申泰雲의 『晦山遺稿』에 근거하여 안동의진의 권옥연, 순홍의진의 신태운 등이 영월에 머물던 서상렬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음을 밝혔고(권대웅, 「을미의병기 호좌의진의 영남지방 활동」, 12쪽 각주22), 구완화는 최근의 연구에서 호좌의진과 영남 쪽 의진의 연대를 ‘영남의 의진과 공조하려는 호좌의진 쪽의 의도’, ‘의병을 재기하는 과정에서 안동 쪽 의병론자들이 호좌의진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기대’로 나누어 간략히 검토하기도 했다(구완회, 「한말의 의병장 경암 서상렬의 생애」, 61~63쪽).

412) 이 글에서는 이필화가 대장으로 추대되었던 시기의 의진을 ‘제천의진’으로 표기하여 유인석을 대장으로 내세웠던 ‘호좌의진’과 구분하였다. 이필화는 격문에 자신을 ‘충청도 제천군 의병대장 이필화’라고 표현했고, 유인석은 ‘호좌의병대장’으로 자처했기 때문이다. 날짜는 음력을 기준으로

무혈 입성하여 장담(長潭)의 선비인 이필희(李弼熙)(1857~1900)를 대장으로 하는 지도 부를 정비하고(12.03), 12월 8일에는 단양의 장회 전투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동한 안동 지역의 의병은 지역의 명문가들이 주도했다. 단발령이 내려지자 서원을 중심으로 통문이 들었고, 대규모 항회를 열어 권세연(權世淵)(1832~1899)을 대장으로 하는 안동의진이 출범하였다. 안동의진의 지도부는 대체로 호계서원(虎溪書院)을 중심으로 결속한 정재학파(定齋學派)가 중심을 이루었다.⁴¹³⁾ 위협을 느낀 관찰사 김석중(金奭中)은 권세연이 대장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도주했다(12.07).⁴¹⁴⁾ 며칠 후에는 퇴계의 후손인 진성이씨 문중을 중심으로 한 예안의진이 이만도(李晩燾)(1842~1910)를 대장으로 내세우며 출범했다.⁴¹⁵⁾

영남의 명족들이 대거 참여한 의진의 봉기에 대하여 후에 호좌의진의 지도자가 되는 유인석(柳麟錫)(1842~1915)은 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안동예안이 먼저 일어나면 영남의 모든 고을이 반드시 다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⁴¹⁶⁾ 이러한 기대는 안동을 중심으로 영남 여러 지역의 사족들이 구축하고 있었던 내적인 연대의식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 시기 각 지역에서 봉기한 의진 사이의 접촉 수단은 통문, 또는 격문이었다. 선언적인 내용이 담긴 문장을 통해 봉기의 정당성을 천명했고, 이런 문장을 향교서원 등의 조직을 이용하여 전파하면서 공조할 것을 호소하였다. 영남에 제천의병장

로 하고 필요할 때에 양력 날짜를 아울러 적었다.

413) 김상기, 「1895~1896년 안동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항일투쟁」, 297~304쪽.

414) 김석중은 12월 6일 새벽에 도주하였다(김정섭, 『일록』 을미 12월 6일). 그날 권세연이 대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사양하였고, 7일 저녁에 취임[出座]하고, 공식적인 등단의식을 거행한 것은 아마 9일 이후인 듯하다. 김정섭은 8일의 기록에서 登壇은 '내일[明日]' 있을 것이라고 썼다가 '곧[遷]' 있을 것이라고 고쳐 썼다. 김정섭, 『鄉會時日記』 을미 12월 8일.

415) 「(이만도)연보」 을미 12월조, 『響山集』, 부록. 예안의진에 대한 논고로는 이동신, 「예안지역의 선성의병(1895~1896) 연구」, 『안동사학』 8, 2003; 김화곤, 「예안 선성의병과 온해마을 인물의 역할」, 『안동사학』 11, 2007.

416) 유인석, 「급한 편지」, 『호서의병사적』(1994년 증보판), 33쪽.

이필희의 격문은 전해졌고, 안동의진 권세연 등의 격문은 제천 지역에도 전해졌다.⁴¹⁷⁾

2) 안동의진 침체기의 접촉: 12월 중순~1월 중순

12월 초에 봉기한 안동 지역 의병의 기세는 얼마 가지 않아 꺾이고 말았다. 낙동의 일본군 병참으로 도주한 관찰사는 일본군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고, 12월 15일에는 경병(京兵)이 직접 출동했다. 경병이 예천을 거쳐 안동부로 접근하자 안동의진은 접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모두 흩어져버렸다.⁴¹⁸⁾ 의병 지도부는 의병 문서조차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몸을 피했고,⁴¹⁹⁾ 태동 단계의 예안의진도 지레 붕괴되고 말았다.⁴²⁰⁾ 관찰사 김석중은 곧장 안동부로 복귀했다.⁴²¹⁾ 전투역량을 갖추지 못한 시위의병의 한계였다.⁴²²⁾

이후 안동 지역의 의진은 20일 남짓 침체기, 또는 휴지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안동의진 대장 권세연은 칩거상태에 들어갔으며, 예안의진 대장 이만도는 의진을 해산하고 자취를 감춰버렸다. 예안의진의 부장이었던 이중린(李重麟, 1838~1917)이 청량산에서 재기를 도모하고 있었지만,⁴²³⁾ 아직 안동부로 나아갈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417) 제천에서 편집된 『倂義見聞錄』에 실린 「예안동문·안동동문·안동격문」 등과 안동에서 편집된 『乙丙隨得錄』에 실린 「충청좌도제천군의병장이필(희)격문」 등은 의병이 일어나던 초기의 문자 기록이다.

418) 김정섭, 『일록』 을미 12월 15일: 이궁연, 『을미의병일기』 을미 12월 15일.

419) 박주대, 『漑上日月』 을미 12월 19일.

420) 이궁연, 『을미의병일기』 병신 12월 18일.

421) 김정섭, 『일록』 을미 12월 18일.

422) 12월 초에 이뤄진 안동의진의 지휘부는 30개 직임에 48명이 임명되어 얼핏 보기에 대단히 조직적인 듯 보인다. 박한설, 「초기 안동의병의 임원명부 “安東義勇所見聞錄”에 관하여」, 『안동사학』 11, 2006. 그러나 전투력은 보잘것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23) 김정섭, 『일록』 병신 1월 8일.

안동부가 경병의 손아귀에 들어가던 무렵, 제천의진도 고난을 겪고 있었다. 장희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포군들이 흩어지고, 이를 지휘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휘부는 영남 의병 세력과 손잡고 재기하기 위하여 순흥풍기 지역을 전전하였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⁴²⁴⁾ 그러나 이필화원용정(元容正) (1860~1905) 등 지휘부의 일부 인사들은 안동 지역까지 진출하여 교섭했던 것으로 보인다.⁴²⁵⁾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체제를 추스르고 화려하게 재기한 것은 제천의진이었다. 영남 북부 지역에서 영남과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던 의진의 지도부는 유인석의 지시에 따라 영월로 북상하였고, 사군(四郡) 지역의 포군들까지 확보하여 ‘호좌의진’을 건설했기 때문이다(12.24).⁴²⁶⁾ 제천의 장담 마을에서 강학을 주도했던 유중교(柳重敎)(1832~1893)의 제자들이 의진의 지도부에 대거 참여하였다.⁴²⁷⁾

이후 호좌의진은 별다른 전투도 없이 제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을 일거에 장악하였다. 개화노선을 추종하는 단양군수청풍군수 등의 지방관을 베고, 중부지역 20개 고을을 관장하는 충주성을 장악하고 관찰사 김규식(金奎弼)을 처단했다. 친일 관료를 과감하게 처단하는 호좌의진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로써 그 명성을 크게 떨칠 수 있었다. 아울러 관군과 일본군의 반격에 대처하

424) 구완희 『한말의 제천의병』, 73~82쪽.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호좌의진에 관한 설명은 이 자료를 따랐다.

425) 제천의진이 붕괴된 후, 이필화와 원용정 등이 안동으로 향하였으며(장충식, 『日記』 을미 12월 9일), 유인석은 12월 11일자 편지에서 이필화가 이미 고개를 넘어 영남의 의병과 합세하고 있다고 했다(유인석, 「급한 편지」, 『호서의병사적』, 33쪽). 일본군 기록에 따르면 안동의진이 안동부를 장악하던 시절, 원주, 또는 충주에서 건너온 ‘단발배척자’들이 속속 안동의진에 가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제천의진 지휘부의 인사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발령 반대 민중봉기 각지 상황 보고」 1~4(『일본공사관기록』 1996년 1월 22~24일).

426) 四郡이라 함은 ‘제천청풍단양영춘’의 네 고을을 가리키는 관용어이며, 호좌의진이 출범한 날짜에 대하여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 구완희, 『한말의 제천의병』, 84쪽.

427) 유중교가 제천의 장담으로 이주한 것은 1889년 가을이었고, 사망할 때까지 강학을 통하여 학인들을 길러왔고, 이들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다. 유중교의 장담 강학에 대하여는 구완희, 「성재 유중교의 강학과 문인집단의 확대」, 『역사교육논집』 44(2010)를 참조.

는 과정에서 영남 지역의 역량까지 동원하려고 구상하게 되었다.⁴²⁸⁾

한편 이 시기의 안동의진은 재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런데 안동의진이 뚜렷하게 재기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안동부가 다시 안동의진의 수중에 들어왔다. 안동부를 장악하고 단발을 촉구하던 관찰사 김석중이 1월 6일에 황급히 낙동으로 도주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사정을 안동의 의병론자였던 김정섭^{金鼎燮}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듣자하니 관찰사 김석중은 경군^{京軍}순감주사 등을 거느리고 … 이달 초 6일에 … 산 속의 험한 길을 따라 상주로 도망갔는데, 반드시 청량산의 의병과 관동의병이 곧 들어온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움직인 것이라고 한다. 혹 서쪽에서 온 이상한 소문이 있어 그런 것일까?⁴²⁹⁾

이처럼 김정섭은 관찰사의 도주에 대하여 ‘혹시 서쪽에서 온 이상한 소문’ 때문일까 하는 의문을 갖기는 하였지만,⁴³⁰⁾ ‘청량산 의병’과 ‘관동의병’의 움직임을 두려워 도망한 것으로 이해하는 안동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는 두 의진에 대한 안동 지역의 기대를 말하는 것이기도 했다.

청량산 의병이란 이중린의 지도에 따라 청량산 일대에서 재기한 예안의진을 말한다.⁴³¹⁾ 예안의진은 1월 초에는 구체적인 군사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고, 영양에서 봉기한 김도현^{金道鉉}(1852~1914)도 예안의진에 가담하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⁴³²⁾

428) 「徐敬庵傳」, 『六義士列傳』.

429) 김정섭, 『일록』 병신 1월 8일.

430) ‘서쪽에서 온 이상한 소식’은 아관파천과 친일내각의 붕괴와 관련이 될 듯하다.

431) 이 글에서는 안용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병부대를 가리킬 때에 ‘○○의진’이라고 표기했다. 이 무렵 예안의진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 가운데는 영양에서 봉기한 김도현도 있었다.

432) 이극연, 『을미의병일기』 병신 1월 47일; 김도현, 『靑山先生倡義顯末』(『독립운동사자료집』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하는 관동의병은 어떤 부대를 가리키는 것이었을까? 위 인용문의 바로 앞에는 ‘호좌소모장 서상렬이 관동의 영월평창정선 등의 고을로 가서 ... 포병을 얻어 거느리고 영남으로 와서 도적을 칠 것’이라는 소문을 전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관동사통(關東私通)’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관동사통

이변의 의거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의 시기에 신하로서 목숨을 바쳐 죽을 날입니다. 호서와 관동에서 먼저 올라가니 저 역적의 과수는 섬멸되어 이미 없어졌다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도에서도 의는하지 않았는데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오로지 영남만이 홀로 아직 아무 말이 없으니, 안동에서 의병을 거둔 것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

충의의 마음은 충청도나 경상도에 차이가 없으며, 본격한 마음은 서로 구별이 없습니다. 이에 본진으로부터 한 갈래의 부대를 뽑아 보내어 날을 잡아 재를 넘을 것입니다. 없드려 바라건대 ...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다하여 도적을 섬멸하기를 남김없이 하여 위로는 국가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는 창생의 목숨을 건진다면 어찌 다만 영남 한 구역에서만 칭송이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겁을 먹고 구차히 피하거나 치욕을 달게 받고 다스려지기를 도모한다면 ... 이런 무리는 마땅히 잡아들어 베어 죽이리니, 각자가 경계하고 살피고 고개 아래에서 기다려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영력 다섯 번째 병신년(1896) 1월 소모토적대장 서상렬⁴³³⁾

이 문건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관동사통’이라는 표현과 ‘소모토적대장’이라는 표현에서는 서상렬이 영남으로 내려가기 이전에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과 ‘소모토적대장’의 칭호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상렬이 가리켰던 영남 지역 의병의

2), 19쪽.

433)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경북지역의병자료』, 340쪽; 김정섭, 『일록』 병신 1월 8일.

열기를 다시 일으키려고 내려오려 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⁴³⁴⁾

결국, 1월 초에 관찰사와 경병을 안동부에서 물리나게 한 ‘관동의병’은 서상렬이 이끄는 호좌의진의 소토진이었다. 당시 서상렬이 관동 지역에 머물렀기에 영남 쪽에서는 관동의병이라고 이해하였다. 영남 쪽의 자료에 소토진을 ‘월진(越陣)’, 즉 영월의진이라고 기록한 경우가 많았던 것도 꼭 같은 이유에서이다.⁴³⁵⁾

그런데 소토진의 남하는 영남 지역이 절실하게 요청한 결과이기도 했다. 특히 권옥연(權玉淵)(1839~1900)을 중심으로 한 안동의진 쪽의 도움 요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호좌의진이 충주에 머물며 위세를 떨치던 시기의 상황을 전하는 다음 기록을 우선 보기로 한다.

안동의 의병이 적에게 무너지자 그 일을 주관한 정언(正言) 권 아무개가 유 선생을 찾아와 구원을 청하고 물러 나와 공(이춘영)과 더불어 이야기하자, 공은 그 손목을 잡고 울며 하는 말이 “요즈음 천지가 새로 개혁할 것 같고 변란이 극단에 도달했다 하겠는데, 하늘이 아직도 화를 뉘우치지 아니하여 공과 같은 이로 하여금 이 지경으로 패하게 하였던 말인가.” 하면서 마치 부자형제가 지하에서 다시 살아나온 것같이 하니 그 사람은 감격하여 목 메어 울었다.⁴³⁶⁾

여기서 정언 권 아무개는 권옥연을 말한다. 그는 권세연의 고향 마을인 유곡(酉谷)(닭실) 출신의 선비로서, 두 사람은 7대조에서 갈라진 같은 항렬이었다.⁴³⁷⁾ 따라서 권옥연은 안동의진의 패전으로 침거하고 있던 권세연이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434) 이 무렵 서상렬은 다양한 통로로 관동지역에서 모병하여 영남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계획을 천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일록』 병신 1월 8일.

435) 김정섭, 『일록』 병신 1월 12일; 이궁연, 『을미의병일기』 병신 3월 6·13일.

436) 「이괴은진」, 『육의사열전』, 당시 안동 쪽에서는 호좌의진 쪽의 기세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기대하고 있었다. 김정섭, 『일록』 병신 1월 9일.

437) 『安東權氏僕射公派世譜』(1980).

또한, 안동의진 외에도 호좌의진과 접촉한 여러 의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안의진영천의잔순흥의진 등이 일단 확인되는데, 예안영천의 경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안동-예안의 두 고을은 본래 추로(鄒魯)의 고향이니 ... 다른 고을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또한 ... 의거하던 초기에 두 고을에서 저희 의진[副陣, 호좌의진]에 청원하여 편지와 격문이 이어졌기에 서상렬에게 이를 맞아들이게 하였습니
다.⁴³⁸⁾

대체로 영월의진[越陣]은 유곡에 사는 정언 권옥연과 여러 영천(榮川)의 사골 유생이 자주 왕래하면서 여러 번 소모장 서상렬에게 간청하여 며칠 안으로 넘어오게 하였다고 한다.⁴³⁹⁾

결론적으로 소토진의 남하는 호좌의진(또는 이진의 제천의진)과 안동의진을 비롯한 영남의 여러 의진들 사이에 있었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형세가 불리 해지면 피차간에 도움을 청하고 지원을 통하여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호좌의진이 성세를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침체를 겪고 있었던 안동의진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소토진은 영남 지역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기대하면서, 성공적인 연대를 통해 의병 전쟁의 국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이다.

438) 박주대, 『羅巖隨錄』, 「湖西義將通安禮文」.

439) 김정섭, 『일록』 병신 1월 12일.

3. 안동의진의 재정비와 소토진의 구성

1) 안동의진의 재정비

영남 쪽으로 호좌의진이 내려온다는 소문은 1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더욱 구체화하였다. 관찰사가 도주한 안동부에 곧 예안의잔영천(樂川)의잔소토진 등이 들이닥친다는 통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서후면 명동에 살던 권제녕(權濟寧)과 풍산의 오미 마을에 살던 김정섭의 1월 12일 기록에 동시에 나타난다.

삼계 의약소(三溪義約所)에서 서후(西後)의 의병 모임에 사통(私通)을 보냈는데, 관동의병 1,500명이 영남에서 도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11일에 고개를 넘어오고, 선성(宣城)의 청량의진이 또한 장차 본부(本府)로 올 것이라고 한다. 천성의진(川城義陣)은 북쪽 군사[北軍]를 지원할 뜻으로 아직 출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⁴⁴⁰⁾

밤사이에 서후면의 사통에 이르기를, ‘청량산과 영천의 의병진이 장차 내일 안동부로 들어가고, 관동의 의병도 오래지 않아 넘어올 것이다...’고 하였다. ... 대체로 영월의진(越陣)은 유곡에 사는 정인 권옥연과 여러 영천의 시골 유생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여러 번 소모장 서상렬에게 간청하여 며칠 안으로 넘어오게 하였다고 한다.⁴⁴¹⁾

즉, 관동의병이 천성의진과 함께 남하할 것이며, 청량의진(예안의진), 영천의진도 안동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물론 관동의병은 소토진을 뜻하며, 천성의진은 권세연이나 권옥연이 살던 내성(乃城) 지역에서 삼계의약소를 중심으로 태동한 의진이다.⁴⁴²⁾ 결국, 호좌의진과 접촉하면서 재기하려던, 연대를 추진하던 세력들

440) 권제녕, 『의중일기』 병신 1월 12일.

441) 김정섭, 『일록』 병신 1월 12일.

442) 안동의 월경지인 내성은 안동의진 대장이 나온 곳이라 하여 유독 탄압을 받았다 하며, 천성의진의 결성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김정섭, 『일록』 병신 1월 5일). 삼계의약소는 유곡의 권씨들이

이 안동에 모이는 것이었다. 안동의 의병론자들도 이들 부대의 이동이 안동 의병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⁴⁴³⁾

이처럼 여러 의진이 안동으로 모여든 것은 안동이 차지하는 영남에서의 위상 때문이었다. 전통적으로 안동은 대도호부로서 군정 체제상 영남 북부 지역 14개 고을을 통제하는 고을이었고, 당시에는 안동관찰부가 있어 17개 고을을 관할하던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 다른 고을들의 의진에서도 안동의진을 중심 의진(主鎭)으로 인정하고 있었다.⁴⁴⁴⁾

실제로 안동의진은 소토진이 남하하기 이전에 이미 재정비되고 있었다. 우선 권세연에게 계속 지휘권을 맡길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유임을 희망하는 쪽이 있었지만, 여러 의진이 연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의진의 동의가 필요했다. 다음의 자료는 이를 말해준다.

예안영천 두 진영(의 형편)을 살펴 알게 되었다. 단지 우리 고장의 동정이 어떠한가를 보자면, 동쪽 편은 예전의 대장(舊將)을 다시 근무하게 할 뜻이 있어 두 의진에 간청하고 있다하며, 향중에서 상의하기로 하였다 한다. 월상(月上)은 서두르는데, 동북 쪽은 좀 아박하다.⁴⁴⁵⁾

여기서 권세연의 유임을 원하는 동쪽 편은 호파(虎派) 계열을 말한다. 이어지는 기록에서 언급하는 월상은 월곡의 호계서원 쪽으로 보이고, 새로운 대장을 내세우자고 주장하는 쪽은 동북쪽, 즉 예안 쪽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권세연의 유임을 원하는 쪽에서는 연대의 중요한 상대이기도 한 예안의잔영천의진의 동의가 필요했

중심이 된 삼계서원이 있던 삼계 마을(봉화읍 삼계리)에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태동한 의진을 권세연은 ‘천성의진’ 또는 ‘삼계의진’이라고 일컬었다(권세연, 『의중일기』 병신 1월 12·13일).

443) 김정섭, 『일록』 병신 1월 13일.

444) 금석주, 『일기』 병신 2월 24일.

445) 김정섭, 『일록』 병신 1월 15일.

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권세연은 지난겨울의 패전 책임을 들어 의병장 자리를 내놓기 위하여 거듭 사양하다가 향회를 열어 중론을 묻고자 하였다.⁴⁴⁶⁾ 영남 여러 의진의 연대가 요구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향회의 결과 대장이 유임하고, 그 대신 안동의진의 지휘부가 다시 정해졌다. 우선 하회(河回) 출신, 즉 안동권에서 호계서원과 경쟁 관계이던 병산서원 계열의 몇몇 인사를 발탁하여 종래 호파에 편중된 지휘부의 인사를 손보았다. 유난영(柳蘭榮, 1838~1917)을 재군문도총(諸軍門都總)으로 기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천성의진을 안동의진에 흡수하는 형식으로 핵심 인사를 발탁하였다.⁴⁴⁷⁾ 16일에 안동부에 입성한 천성의진의 도도총(都都總) 김하림(金夏林, 중군장이던 권재호(權載昊, 1854~1903)를 각각 안동의진의 재군문부총(諸軍門副總) 중군장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것이다.⁴⁴⁸⁾

결국, 향회의 결과 재편된 안동의진의 구성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연구 성과는 안동의진에 병파 계열의 인사를 영입한 부분에만 관심을 두었으나,⁴⁴⁹⁾ 천성의진 계열의 인사가 지휘부에 들어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안동의진이 재편된 시점이 호좌의진(소토진)과의 연대를 추진하던 시기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호좌의진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지역내에서 일정한 타협을 거치면서 안동의진 내에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을 말한다. 아울러, 영남 여러 고을 의진의 연대가 추진되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446) 권세연, 『의중일기』 병신 1월 16·17일.

447) 이규연, 『을미의병일기』 병신 1월 24일. 안동의진이 정비되는 과정에 천성의진을 흡수하는 부분은 일찍이 주목하지 못하였던 부분이다.

448) 권세연, 『의중일기』 병신 1월 16·21~22일. 김상기는 하회의 유난영, 해저의 김하림을 의진에 영입하는 부분에 주목하여 ‘여러 지역으로부터 군수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 지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김상기, 「1895~1896년 안동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항일투쟁」, 314쪽.

449) 권대용, 「을미의병기 안동유립의 의병투쟁」, 288쪽.

2) 소토진의 구성

호좌 소토진의 남하는 예정보다 다소 늦어졌다. 서상렬이 근거지를 출발한 것이 1월 18일이었기 때문이다.⁴⁵⁰⁾ 소토진의 영남 진출에 대하여는 죽령을 넘었다는 언급과 새재를 넘었다는 기록이 혼재한다. 용궁에 살던 선비인 이규명李圭命은 ‘관동 소모장 서상렬이 관동의병을 이끌고 죽령을 넘어왔다’라고 기록하였고,⁴⁵¹⁾ 예전에 살던 박주대朴周大는 관동의병이 새재를 넘어 유곡을 거쳤다는 기록, 관해關海 풍기를 거쳐 예천으로 들어온다는 기록을 동시에 남겼다.⁴⁵²⁾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소토진이 부대를 나누어 시차를 두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행군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영월 쪽에서 활동하던 서상렬은 죽령을 거쳐 내려오고, 충주 쪽에서 수안보 전투 등에 참전하고 있던 홍선표洪選杓(1872 ~1947) 등은 새재를 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⁴⁵³⁾ 그 밖에 문경의 동로면 소야를 거쳐 남하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자료적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다.⁴⁵⁴⁾ 경로가 어려웠던 소토진의 행군은 최단 경로를 통하여 내려왔다고보다는 병력을 소모하고, 영남의 유력 인사를 맞이하여 소토진의 위용을 갖추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상렬의 소토진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봉화의진의 대장 금석주琴錫柱(1857~1920)가 남겨놓은 ‘호좌의병소토영임안潮左義兵召討營任案’이 전한다.

450) 장충식, 『일기』 병신 1월 18일.

451) 이규명, 『記年』 병신 1월.

452) 박주대, 『저상일월』 병신 1월 19-22일. 여기서 ‘관해’란 관동지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53) 박정수, 『下史安公乙未倡義事實』 병신 1월 11일. 홍선표는 이준영이 전사한 수안보 전투에 참전했다.

454) 조동걸, 「안동연합의진, 김도화의 태봉전투」, 『경향신문』 1989년 5월 2일. 관대응도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권대응, 「을미의병기 경북 북부지역의 예천회맹」, 65쪽.

- 대장大將： 서상렬徐相烈
- 군사軍師： 김상규金尙圭
- 도총都總： 원용정元容正
- 총독總督： 장복규張復圭
- 중군中軍： 홍선표洪選杓
- 전군前軍： 김동관金東觀
- 후군後軍： 홍영섭洪永燮
- 좌군左軍： 김성한金星漢
- 우군右軍： 지해영池海永
- 선봉先鋒： 황기룡黃基龍
- 좌익左翼： 이장표李章表
- 좌위左衛： 풍세청馮世淸
- 편장偏將： 최성환崔性煥
- 도포장都砲將： 정치상鄭致祥
- 참모參謀： 권진權璉·박제선朴齊宣·우창하禹昌夏·권병추權秉鍾·송계흠宋啓欽
김영규金永圭·권사연權泗淵
- 자제군관子弟軍官： 서상옥徐相玉
- 종사從事： 엄기섭嚴基燮·지창석池昌錫·엄상철嚴相轍·최중인崔重仁·
송치익宋治翼·권재중權在重
- 사객司客 겸 군수도감軍需都監： 임성호林聖浩
- 군수유사軍需有司： 이흥로李泓魯
- 군마감관軍馬監官： 장준張浚·김정현金正顯
- 정탐유사偵探有司： 홍순억洪淳億
- 파수장把守將： 김수현金守顯·박용하朴用夏
- 중군참모中軍參謀： 이상교李相敎·정수봉鄭壽鳳
- (중군)종사從事： 권귀호權龜鎬
- 전군종사前軍從事： 권병규權秉圭
- 후군참모後軍參謀： 권상학權相學
- 집사執事： 조병언趙秉彦·김순화金順化·유진천柳振千·김창룡金昌龍·고문화高文化
- 대진참모大陣參謀： 송지영宋之永

[추도追到]

- 참모參謀： 권재명權在明
- 유격장遊擊將： 이화영李華榮

○감호장監護將: 조예빈趙禮彬

이 자료는 화맹 당시 소토진의 구성을 알려준다. 먼저, 자료에 나타나는 49인(뒤늦게 참석한 사람 셋 포함) 중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절반 정도이다. 그러나 호좌의진의 편제를 참조하면 더 많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⁴⁵⁵⁾ 먼저 대장 휘하의 지휘선에 중군이 있고, 전후좌우군장과 선봉장 등 전투부대장이 있었다. 그밖에 좌악좌우편장 등은 소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다. 이들 전투부대장은 소부대를 거느리고 소모장으로도 활동한 예가 많이 보인다.⁴⁵⁶⁾ 참모와 종사 조직, 자체군관은 대장을 보좌하게 하였으며, 주요 지휘관에게도 각자의 참모종사 조직이 있었다. 그밖에 사객(겸 군수도감)·군수유사 등 특정 업무를 배당받은 직임자가 있었다. 집사는 부대 내의 허드렛일을 하는 직임으로 짐작된다. 특이한 점으로는 소토진에 대진 참모, 즉 유인석의 참모가 따라와 있었다는 점이다.

그 구성의 이모저모를 보면, 우선 제천의 장담에서 강학하던 선비들이 있다. 원주 출신의 원용정, 연풍 출신의 홍선표, 영월 출신의 홍영섭 등이 이에 해당한다.⁴⁵⁷⁾ 특히 원용정은 제천의진의 시기에 한때 안동 의진을 찾아 연대를 추진했던 경력이 있는 인물로서 서상렬의 휘하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밖에 사군 출신으로는 권진(영춘)·지해영(단양)·엄기섭(영춘)·송지영(단양) 등이 있다.⁴⁵⁸⁾

455) 이상의 설명은 호좌의진의 편제 구성을 참고로 한 것이다. 구완회, 「을미의병기 호좌의진(제천의병)의 편제」, 『조선사연구』 6, 1997.

456) 황기룡은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3월 13일조와 『백산선생창의전말』에 소모장으로 나타나고, 홍영섭 등은 『경암집』 권2, 39쪽 하에 ‘소모장’으로 표시되었다.

457) 원용정의 호는 惻庵이며 유인석의 제자로서 장담에 출입하였고, 『복은』·『의암유선생서행대략』 등의 의병사 기록을 남겼다. 홍선표의 호는 醒雲이며, 연풍에 살았다. 장담에 출입하였으며, 소토진에서 활약하였고, 후에 유인석의 해외 근거지 마련에 전력하였다. 홍영섭(1867 ~?)은 영월에 거주하던 선비로서 유종교를 좇아 장담에 출입하였다. 각각의 근거를 일일이 적지는 않으며, 대개는 구완회, 『한말은 제천의병』 부록에 실린 인물정보를 참조했다.

458) 권진(?~1896)은 동학 농민군이 봉기하였을 때에 이를 공격하였던 의병문자이고, 지해영은 단양의 옷바우에 살던 선비이며, 엄기섭은 후에 원용팔 의진에 참모종사·선봉장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소토진 구성원이 아니면서 화맹에 참여했던 송지영은 단양의 도전에 살았으며 이정

관동 출신으로는 김동관·홍영섭·박용하 등 영월 선비가 각각 전투부대를 이끌었다.⁴⁵⁹⁾ 원주 출신으로는 원용정 외에 김상규·이홍로가 각각 군사(軍師)·군수(軍守)를 맡았다.⁴⁶⁰⁾ 영남인으로는 영천(榮川) 출신이 많았는데, 의진 내의 최연장자였던 장복규가 총독을 맡고 송계흠·박계선이 참모를, 송치익이 종사를 맡았다.⁴⁶¹⁾ 그밖에 예천 출신인 권재명이 참모, 안동 출신으로는 권재중이 종사로서 활동했다.⁴⁶²⁾ 종사에 포진한 이들은 대부분 주장인 서상렬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측근들일 터인데, 송치익·권재중은 영남으로 내려온 후에 맞아들인 경우일 것이다. 그중 권재중은 향리 출신이었다고 하는데, 안동에서 의병이 처음 일어나던 시기에 향리층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진다.⁴⁶³⁾ 자제군관 서상욱은 서상렬의 집안사람이다.⁴⁶⁴⁾

신분으로 보아 대개는 사족 출신이었을 것이지만 향리, 또는 평민 출신도 지휘부에 들어 있었다. 권재중이 향리 출신이었던 것은 이미 언급하였지만, 정수봉도 평민 출신이었다.⁴⁶⁵⁾ 그밖에 선봉장인 황기룡이나 좌익장·좌위장·편장도·포장과 여러 집

약장총식과 함께 단양에서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태봉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곧장 귀환했다. 장익환, 『日記』 병신 2월 18일.

459) 김동관은 진사로서 청풍김씨이고, 박용하에 대하여는 소토진에 참여한 외에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460) 김상규는 훗날 원용팔이 봉기하였을 때에 정선수성장을 맡게 되는 인물이고, 이홍로(1861~?)는 생일이었다(『司馬榜目』).

461) 장복규(1826~1896)는 화계(영주 장수면 화기리) 출신으로 호는 四而齋이다. 70이 넘은 노인으로서 의병에 참여하였다가 순국하였다. 송계흠(1856~1934)·송치익은 송호(장수면 소룡리) 출신의 선비이다(『영주인물지』). 박계선(1869~?)은 반남인으로 반곡(가흥동 서리골)에 살았다(『九龍巖稷』, 『안동의 제(1)』, 안동민속박물관, 2006). 송치익은 송호 출신의 선비로서 후에 군기문관 혐의로 처형되었다(박주대, 『저상일월』 병신 3월 2일).

462) 권재중은 안동의 서리로서 소토진에 종군하였는데, 후에 관군에게 잡혀 순국했다. 유인석, 『오사원 인영에게 답하다(1897)』, 『毅庵集』 권17.

463) 처음에 안동에서 의병봉기를 논의하기 위한 향회가 개최되던 시기에 향리들은 관찰사를 공격하려고 하고 유생들에게 의병 봉기를 강박했다고 한다. 김정섭, 『향회시일기』 을미 12월 5·6일.

464) 서상욱은 장담에 출립하던 선비로서 서상렬의 생가 쪽 인물로 짐작된다.

465) 이조승, 『西行日記』 병신 6월 25일. 정수봉은 중군인 홍선표의 수하로서, 평민 출신으로 보인

사는 사족이 아닌 포군 출신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⁴⁶⁶⁾

대체로 보아 사군 출신에 영월원주 출신이 포함되고 여기에 영남 쪽 인사들이 가세하는 형국이다. 특히 전투부대를 이끈 주요 지휘관은 거의 모두 장담 선비, 또는 영월 쪽에서 가담한 인물이었는데, 이는 사군 지역에서 이뤄진 강화 활동, 영월 지역에서 행해진 소모활동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소토진의 초기 형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영천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토진 내의 영남 쪽 인사는 연대 투쟁을 내세우는 소토진이 남하하면서 노력하고 호응받은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이다. 즉, 소토진은 영남으로 남하하면서 금석주의 자료에 나오는 진용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4. 예천 회맹과 태봉 전투

1) 예천 회맹

서상렬이 안동부의 안기역(安奇驛)에 도착한 것은 1월 27일이었다. 안동의진의 중군 권재호가 마중 나왔고, 서상렬은 안동의진 대장 권세연과 빈주(賓主)의 예로 만났다.⁴⁶⁷⁾ 영남권 의병의 상징인 안동의진과 서상렬의 만남은 호좌의진과 영남 지역 의진의 연대를 알리는 상징적인 만남이었다. 이튿날에는 서상렬의 소토진과 봉화 의잔안동의진이 함께 모여서 위세를 과시했다. 당시 포군이 8백여 명이고(호좌봉

다. 후에 홍선표를 좇아 요동을 다녀왔고, 유인석이 두 번째로 망명할 때에는 온 가족을 데리고 따라갔다.

466) 호좌의진의 경우, 선봉은 통상 평민 출신이 많았다. 유진천은 유인석의 종사관이었던 이조승 집안의 하인이었던 俞鎭天和 동일인이 아닐까 하며, 황기룡은 후에 민용호의 관동의진에 합류한 '안동 중군 黃騎龍'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467) 이금연, 『을미의병일기』 병신 1월 27일.

화가 3백 명, 안동이 4~5백 명), 그 밖의 군사들도 많았다.⁴⁶⁸⁾ 이 자리에서 연대의 대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서상렬과 권세연의 만남이 있었던 직후에 권세연이 대장직에서 물러났다. 여러 의진이 행군하여 안동의진 대장 권세연에게 왜군을 토벌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권세연이 12월의 패전을 거론하며 군이 사퇴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의성김씨 문중의 어른이기도 했던 도사都事 김도화金道和(1825 ~1912)가 대신하게 되었다.⁴⁶⁹⁾ 소토진의 처지에서 본다면 여러 차례 교류하며 연대를 다짐했던 상대 쪽 최고 책임자가 교체된 것이었으므로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안동 중군이 의성군수를 잡아다 처단한 것에서 보듯이 강경투쟁의 노선은 이어졌다.⁴⁷⁰⁾

2월 7~8일에 서상렬의 소토진과 안동·봉화·순흥·영천·예안·풍기의 의진이 풍산을 지나 예천을 향하여 행군하였다.⁴⁷¹⁾ 이때 소토진은 맨 선두에서 섰는데, 그 기세가 장대하고 질서정연한 대오를 이루었다고 한다.⁴⁷²⁾ 당시 예천에서도 의진이 결성되었는데, 안동 쪽에서는 개화당 출신의 수령이 중심이 된 거짓 의병이 아닐까 하여 의심하고 있었다.⁴⁷³⁾ 서상렬과 안동 중군 권재호는 공동명의로 된 통문을 예천에 보내어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데도 ‘관망하고 서로 시기하는’ 예천의 분위기를 강력히 경고하였다.⁴⁷⁴⁾ 이로써 유곡 출신으로서 안동 중군을 맡은 권재호가 소토진과의 연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대편 당사자였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468) 이극연, 『을미의병일기』 병신 1월 28일.

469) 김정섭, 『일록』 병신 1월 29일.

470) 김정섭, 『일록』 병신 2월 3일.

471) 이극연, 『을미의병일기』 병신 2월 7일; 김정섭, 『일록』 병신 2월 8일.

472) 김정섭, 『일록』 병신 2월 8일.

473) 김정섭, 『일록』 병신 1월 20일.

474) 박주대의 『나암수록』에는 2월 8일자 「湖左召募將徐相烈安東中軍權玉淵通體泉文」이 수록되었다. 그런데 당시 안동 중군은 권옥연이 아니고 권재호로 바뀐 후였다.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천에 여러 의진이 모여들자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출정에 앞서 의진이 아직 붕기하지 않은 용궁상주함창 등으로 가서 붕기를 촉구하고 태봉낙동으로 향하기로 의견이 모였다.⁴⁷⁵⁾ 이때 영해로 소모하러 갔던 예안의진의 포장(砲將) 이주필(李周弼)이 영덕군수 정재판(丁在寬)을 잡아와서 베었다. 2월 8일의 일이었다.⁴⁷⁶⁾ 이 일은 호좌의진이 타협 없이 밀고 나갔던 왜군수 처단이라는 노선이 영남 쪽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2월 10일에 이르러 서상렬은 예천의 한천(寒川) 백사장에 모인 영남 일곱 고을의 의진과 회맹을 추진했다.⁴⁷⁷⁾ 소토장 서상렬이 맹주가 되고, 안동의진의 중군 권재호, 예안의진의 중군 김석교(金錫敎), 봉화의진 대장 금석주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⁴⁷⁸⁾ 행사 과정에 예천군수 유인형(柳寅衡)이 개화당으로 지목되어 처단되었다.⁴⁷⁹⁾ 당시 맹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 역적의 편이 되지 말 것.
- 일. 중화(中華)의 제도를 변경하지 말 것.
- 일.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을 변하지 말 것.
- 일. 자기의 사사로움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 것.
- 일. 적을 구경만 하고 나아가 치지 않는 것.

475) 김정섭, 『일록』 병신 2월 9일.

476) 김정섭, 『일록』 병신 2월 89일.

477) 김정섭, 『일록』 병신 2월 10일; 박주대, 『자상일월』 병신 2월 10일. 예천읍의 ‘한천 백사장’이라고 하며, 酒泉(예천읍 서본리 박샘)이라고도 한다. ‘예천 회맹’에 관한 연구로는 권대웅, 「을미의병기 경북 북부지역의 예천회맹」, 『민족문화논총』 14, 1993.

478) 금석주의 『일기』에는 회맹에 참여했던 봉화의진 호좌소토장 청량의진(예안의진)의 주요 직임자들의 명단이 전한다.

479) 유인형이 처단된 것은 안동관찰사 김석중을 도와 안동의진을 깨뜨렸던 일 때문이라고 한다. 권대웅, 「을미의병기 호좌의진의 영남지방 활동」, 18쪽; 김상기, 「1895~1896년 안동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항일투쟁」, 319쪽. 관련 사료는 이금연, 『을미의병일기』 을미 12월 1221일; 김정섭, 『일록』 병신 2월 10일.

무릇 우리 함께 맹세한 사람들은 이미 맹세한 후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춘추의 대의를 밝히고 사람과 짐승의 큰 분별을 판단하여 온 누리를 깨끗이 쓸어내고 왕실(王室)을 굳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이 맹세를 변하는 자가 있으면 귀신과 사람이 모두 나서 베어 죽일 것이다.⁴⁸⁰⁾

2) 태봉 전투와 패전에 대한 책임 논란

가. 태봉 전투의 실제

예천 회맹의 결과 의진 사이의 공식적인 연대가 이뤄졌다. 며칠 후에 연합의진이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한 태봉 전투가 있었다. 그런데 회맹 이후에 일본군을 치는 과정에서 태봉의 일본 병참만이 목표였던 것은 아니다. 회맹 이후의 군사작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기술한 이공연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저께 여러 고을이 예천과 더불어 세력을 합쳤으니 여덟 고을 병력이 거의 수천 명에 이르렀다. 공격할 지명을 차례로 적어 놓고 각 진으로 하여금 점을 찍게 하였는데, 선두로 예천 병력은 문경을 찍었고, 일곱 고을이 병력은 태봉낙동을 찍었다. 예천 병력은 점 찍은 곳으로 곧장 출발했고, 일곱 고을 병력은 이튿날 아침 일찍 요기하고 태봉을 포위하여 나아갔다.⁴⁸¹⁾

결국 회맹에 참여했던 의진들은 주변에 늘어난 문경태봉낙동 등 일본군 병참 모두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 용궁을 거쳐 산양(山陽, 문경시 산양면)에서 작전을 숙 의하고⁴⁸²⁾ 남서 쪽에 위치한 태봉을 향해 나아갔다. 예천의진은 홀로 문경을 향했는데, 그것은 두 개 병참의 일본군이 서로 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다.⁴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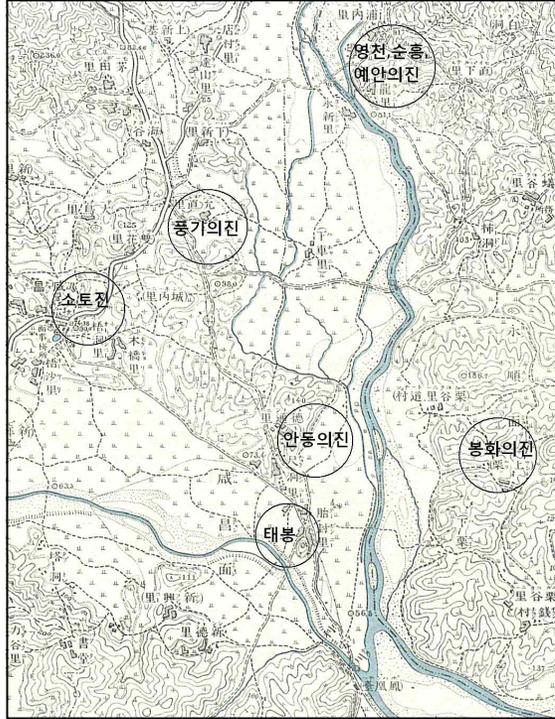
480) 박정수,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2월 13일.

481) 이공연, 『을미의병일기』 병신 2월 17일.

482) 금석주, 『일기』 병신 2월 15일.

서상렬은 호좌의진 제천에 주둔하고 있는 대진(大陣)에도 통지하여 조령의 일본군 병참을 압박해 달라고 요청했다.⁴⁸⁴⁾ 다음 기록은 연합의진이 일본군을 향하여 여러 방향에서 움직임을 알려준다.

안동의진은 (상주의) 덕통역(함창읍 덕통리)으로 가서 주둔하고 호좌의진은 함창으로 영천의진·순흥의진·예안의진은 상주 포내촌(문경 영순면 포내리)으로 갔다. 풍기의진은 (상주) 대교점(大橋店, 함창면 윤지리의 뚝다리)으로 가고, 봉화의진은 상주 동산촌(문경 영순면 울곡리 울곡리 동무지)으로 가서 유진하기 위하여 어둠을 타서 출병하였다. 장졸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서 급히 20리를 달려갔다. 왕태봉(영순면 왕태리)에 안마를 숨기고 10리 앞으로 나가서 장현에서 두 동이의 술을 사서 갈증을 해소하였다. 동산촌에 이르니 맑은



[지도 1] 태봉 전투 전 연합의진의 배치 예정도 (『조선오만분일지형도』)

483) 김상기는 서울 쪽에서 오는 지원군을 막아 태봉의 일본군을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이해했다. 김상기, 『1895~1896년 안동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항일투쟁』, 320쪽.
 484) 박정수, 『창의사실기』 6쪽 상~하; 구완희, 『한말의 제천의병』, 131~135쪽.

이미 오경이나 되었다. … 포수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 경계를 서게 하였다.⁴⁸⁵⁾

[지도 1]에서 보듯이 태봉을 향한 연합의진의 작전은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동으로부터 북쪽, 북서쪽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진이 부채꼴로 늘어서 태봉을 압박하려고 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여러 의진의 배치가 예정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며, 태봉 전투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투가 있기 전날인 15일 밤에 소토군과 일본군 사이에 예기치 않았던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기록에 따르면, 의병들이 뗏다리에 서 전신주를 절단하여 정찰에 나섰던 일본군이 ‘그들과 충돌하여 물리쳤다’라고 하였다.⁴⁸⁶⁾ 예정대로 의진의 배치가 이뤄졌다면, 풍기의진이 전신주를 절단하면서 일본군의 정보망에 포착되었고, 이웃에 있던 소토진이 공격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핵심 전력인 소토군이 패퇴함으로써 연합의진의 사기가 저하되었던 것 같다.⁴⁸⁷⁾

2월 16일에 있었던 태봉 전투의 현장에 대한 묘사는 이공연^{李兢淵}의 묘사가 가장 생생하다.

태봉의 지형은 그 앞으로 넓은 모래밭이 펼쳐져 있고 그 앞에 큰 제방이 있다. 그리고 그 제방 앞으로는 큰 개울이 흘러가며 개울 좌우로는 모두 산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산이 태봉에 이르러 십 리 가까이쯤 되었다.

영월 병력^{越兵}, 즉 소토진이 선봉에 서고, 다음으로는 풍가예안봉화순흥의 의진

485) 금석주, 『일기』 병신 2월 15일. 지도는 태봉 전투가 있었던 시기와 20년 남짓한 시차를 둔 1910년대에 제작된 「朝鮮五萬分一地形圖」를 사용하였다.

486) 「경북지방 폭도격퇴 상황 보고」, 『일본공사관기록』 1896년 4월 30일. 이 기록에는 날짜에 약간의 혼란이 있다. 당시 태봉 부근의 전신주는 오늘날의 상주 함창을 윤적리 쪽에서 덕동, 태봉 동쪽을 지나 이안천을 건너 봉황대 곁을 지나 금곡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낙동으로 이어졌다(『조선오만분일지형도』).

487) 작전을 협의하기 위해 소토진과 접촉 중이던 예안의진의 중군장 김도현은 이 전투를 목격하고 소토진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도현, 『벽산선생장의전말』, 23쪽.

이 순서에 따라서 곧장 제방 뒤쪽으로 들어가서 차례로 진을 치니, 그곳은 앉으면 몸을 숨길 수 있고 서면 총을 쏠 수 있는 곳이니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을 얻었다 할 만했다.

먼저 한번 포를 쏘니 대여섯 놈밖에 안 되는 왜놈이 모래밭에 나타나 총을 쏘는데, 탄환이 마치 큰 비가 오는 듯 흩어져 떨어졌다. 제군이 연이어 발포하여 그치지 않으니 왜놈들의 사격도 드세었다. 아군이 혹 죽고 혹은 총을 맞고도 죽지 않았으며, 잡은 왜놈은 불과 서넛밖에 되지 않았다. 안동 군사가 홀로 산 위에 진을 쳤는데 총을 쏘았으나 왜놈의 진지에 미치지 않았고 다만 우리 진지에 미칠 뿐이었기에 고만 소라고 하였으나 그치지 않았기에 부득이 산 위로 물러섰다. 막 점심을 먹으려는데 왜놈 대여섯이 서너 차례 번갈아가며 떼 지어 나와서 산 아래까지 이르렀다. 안동 후군이 먼저 흩어지자 모두 겁을 집어먹고 달아났다. 영월 병력과 풍가예안봉화의 병력이 몇 사람이 안 되는 이들이 사격하고 뒤를 돌아보더니 후군이 텅 비었으니 세력을 잃으면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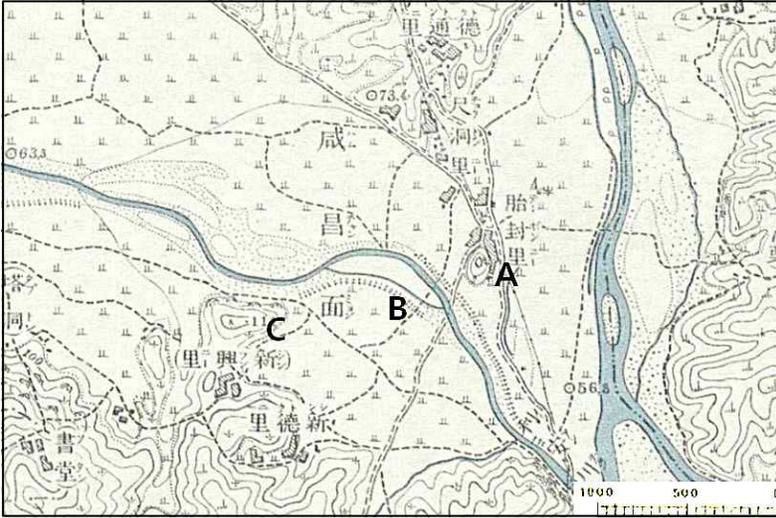
이 자료에는 태봉을 중심으로 모래밭·제방·개울과 안동의진이 의지했던 산이 언급되었다. 종래 연구에서 이를 토대로 현장을 그림으로 표시하거나 지도상에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도나 사진 등으로는 전투의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제시한 지도를 통하여 현장을 부각한 것이 다음의 [지도 2]이다.⁴⁸⁸⁾

이 지도에는 이규연의 기록에 보이는 여러 자연물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다. 연합의진은 태봉(A)의 서쪽으로부터 흘러들어와 남동쪽으로 흘러나가는 이안천(利安川) 건너편의 제방에 의지하여 B 지점에서 일본군과 접전했으며, 일본군이 의지했던 제방도 A 앞부분에 길게 나타난다.⁴⁸⁹⁾ 의병들의 공격 방향은 당초에 여러 의진이 태봉으로 접근할 때와는 다른 방향이다. 즉, 북에서 공격할 것처럼 접근하

488) 전투 시기와 지도 작성 시기는 20년 남짓한 시차가 있으므로 개천의 흐름과 모래톱의 위치 등에는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489) 일본군도 작은 제방에 기대어 맞섰다는 것은 김도현, 『벽산선생창의전말』, 22쪽에 나온다.

다가 반대쪽에서 공격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지도 2] 태봉 전투 현장의 주요 병력 배치 (『조선오만분일지형도』)
 - A는 일본군, B는 소토진 등 여러 의진, C는 안동의진

태봉 전투에 관한 호좌의진 쪽의 자료는 구체적이지 않다. 훈련받지 못한 의병들이 일본군의 반격에 무력하게 흩어졌던 면을 강조하고, 소토진만이 용전분투하였다는 식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⁴⁹⁰⁾

영남 쪽의 자료들은 좀 더 구체적이지만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 앞서 보았던 이규연의 『을미의병일기』 외에 김도현의 『벽산선생장의전말』, 금석주의 『일기』 중 태봉 전투 관련 기사를 내용별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490) 장충식, 『일기』 병신 2월 16일; 원용경, 「卜隱」, 『昭義新編』 권8. 「복은」을 저술한 원용경은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다.

자료 A. 이궁연의 『을미의병일기』⁴⁹¹⁾

- ① 소토진이 선봉에 서고, 풍가예안봉화순흥의 순으로 제방[堤] 뒤쪽에 들어가 진을 치고 일본군과 교전하다.
- ② 안동의진이 독자적으로 산 위에 진을 치고 사격하였으나 탄환이 일본군에 이르지 않고 여러 의진이 있는 곳에 떨어졌다. 제지하였으나 그치게 할 수 없었다.
- ③ 부득이 (여러) 의진이 산 위로 물러섰다.
- ④ 일본군이 진지에서 나와 사격하니 안동 후군이 먼저 흩어지자 모두 겁을 먹고 흩어졌다.
- ⑤ 소토진과 풍가예안봉화의 병력이 뒤가 빈 것을 알고 군사를 돌이켰다.

자료 B. 김도현의 『백산선생창의전말』⁴⁹²⁾

- ① 15일 저녁, 산양에서 소토진풍기의진봉화의진의 종사가 와서 16일의 전투 계획을 알렸다.
- ② 이날 밤, 갑자기 일본군이 급습해오자 소토진과 일본군이 교전하게 되었는데 소토진의 황 선봉이 피해 달아나는 것을 보고 실망하였다.
- ③ 주요 전투는 16일에 벌어졌는데, 예안의진이 앞서고 풍가영천순흥의 의진이 들판을 가로질러 긴 제방[長堤]에 의지하여 사격하는데, 일본군도 작은 독小堤에 의지하여 맞섰다. 안동의진이 뒷산에서 사격하니 진격하던 의진들이 그 사이에 끼인 셈이 되어 산으로 물러서서 사격하였다.
- ④ 안동의진이 달아나면서 여러 의진이 무너졌다.

자료 C. 금석주의 『일기』⁴⁹³⁾

- ① 15일 밤에 소토진이 함창에서 패하였다.
- ② 16일 아침, 예안풍기 두 의진이 먼저 전장에 도착하여 접전했다.
- ③ 각진이 전장에 이르러 산, 또는 언덕[岸]에 기대어 사격하였다.
- ④ 일본군이 반격하자 예안의진풍기의진이 먼저 달아났다. 영천의진순흥의진은

491) 이궁연, 『을미의병일기』 병신 2월 17일.

492) 김도현, 『백산선생창의전말』, 23~24쪽.

493) 금석주, 『일기』 병신 2월 15-16일.

산 위에 머물며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소토진은 전날 밤의 패전으로 전투 의지가 없었다.

- ⑤ 안동의진이 태봉 왼쪽 산에 올라 천보총(千步銃)을 사격하여 적에게 피해를 줬다.
- ⑥ 봉화의진이 병참 앞의 천방(川防)에 기대어 사격하니 일본군의 반격에 물러섰다.
- ⑦ 여러 의진이 일시에 흩어졌다.
- ⑧ 산양으로 돌아오니 오직 소토진이 패잔병을 수습하고 의진이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아 머물게 하였다.

대체로 보건대 ① 여러 의진이 제방, 또는 천방에 의지하여 일본군과 교전했고, ② 안동의진이 멀리 산 위에서 사격하였으며, ③ 안동의진이 먼저 물러서는 바람에 연합의진이 흩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제방에 기대어 나아가 접전했던 부대에 대한 기록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여러 의진이 한꺼번에 쇄도하여 화력을 집중하지 못하였던 것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안동의진의 탄환이 일본군에 이르지 못하고 제방에 의지했던 의병들에게 떨어졌다는 기록에서 당시의 연합 작전이 얼마나 엉성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⁴⁹⁴⁾ 여러 방향에서 위협하였던 데 비하여 자료상에 나타나는 공격은 너무 단조로웠다. ‘천수백 명’이나 동원했다는 의병들이 각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지원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⁴⁹⁵⁾

결국, 연합의진은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고도 60~70명에 불과한 일본군을 제압하지 못하였다. 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할 만큼 훈련이 되지 못한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이다.⁴⁹⁶⁾ 패전하면서 작전 실패의 책임을 다른 쪽에 전가하거나 각자의

494) [지도 2]에서 A로부터 C까지는 대략 1km나 된다. 안동의진의 사격이 별다른 위협이 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석주의 기록에 나오는 여러 의진이 의지했던 언덕은 다른 자료에 나오는 ‘제방’과 같은 것이 분명한데, 봉화의진이 의지했다는 ‘천방’이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는 지도에서도 잘 확인되지 않는다.

495) 김정섭, 『일록』 병신 2월 16일.

전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안동부의 경우, 중군 권재호가 거느린 250명은 병사가 돌아올 때는 단지 열 여섯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전투에 참여했던 이들이 돌아와서 ‘영월봉화안동부의 병력이 왜놈을 죽인 것이 30여 명이나 된다’라고 보고하여 마치 승리한 것처럼 했다고 한다.⁴⁹⁷⁾

나. 패전에 대한 책임 논란

여기서 전투 직후의 분위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연합의진은 모두 흩어져 돌아갔다. 소토진만이 산양에서 패잔병을 수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⁴⁹⁸⁾ 당시 패전의 책임과 관련하여 연합의진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는 태봉 전투가 있었던 다음날의 기록이 우선 참고가 된다.

(안동) 중군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병사 60여 명을 거느리고 오후에 장소將所로 들어왔다. 예천의진의 장수가 사통私通으로 죄를 물었다. 호좌의진의 장수가 항선봉을 보내어 칼을 주어 뒤쫓게 하였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길가에 원성은 모두 안동을 허물하는 것이니 분노가 넘쳤다.⁴⁹⁹⁾

이 기록은 안동 중군 권재호가 패전하고 돌아오자 예천의진소토진 쪽에서 안동 의진의 책임을 물었다는 기록이다. 특히 소토진에서는 선봉장 황기룡을 보내어

496) 당시 일본군의 보고에 따르면 태봉 전투는 7,000명 가량의 의병이 동원되었고, 일본군은 수비대와 원조병 2개 분대가 협력하여 9시간 만에 격퇴시켰다고 하였고, 하루 전에 있었던 전투는 약 70명의 의병과 맞서 30분만에 격퇴시켰다고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의병의 병력은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신선로에 관계된 폭도들의 상황보고(『일본공사관기록』, 京第 18호, 1896.04.16).

497) 이규연, 『을미의병일기』 병신 2월 17일. 자료에는 權文八로 나오는데, 권재호의 다른 이름이다.

498) 금석주, 『일기』 병신 2월 16일.

499) 김정섭, 『일록』 병신 2월 17일. 이 부분은 종래에 잘못 이해되어 예천의진 대장이 서상렬에게 죄를 물었다는 식으로 이해되었다. 관대용, 「을미의병기 호좌의진의 영남지방 활동」, 23쪽.

권재호를 뒤쫓게 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패전의 원인을 안동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음을 안동의진에 가담했던 김정섭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예천의진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박주대의 『자상일월』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전한다.

들리는 소식에 안동·예안·풍기·순흥·봉화 및 호좌의진이 합세하여 태봉의 왜병을 공격하여 거의 승리 직전에 이르렀는데 막판에 일곱 의진이 허경분방(虛警奔放)하고 말았다. 단지 서상렬의 호좌의진만이 본군(예천) 의진과 합류하여 적을 교대로 공격하기로 했다고 한다. 패인은 안동의진이 크게 패했기 때문인데 권 중군의 마음이 초조하여 먼저 달아나버렸다는 것이다.⁵⁰⁰⁾

소토진과 예천의진에서 안동 중군 권재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분위기였던 것은 대체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동의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기로 한다.

권 중군과 송 선달을 모두 잡아들이고, 주서(注書) 권유하(權有夏)를 기복(起復)으로 교체하여 군사를 이끌고 출발하게 했다.⁵⁰¹⁾

매서(妹婿)가… 돌아오는 길에 들으니 중군 권재호가 군령장(軍令狀)을 받고 10초(哨)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출정하여 풍산점에서 하룻밤을 묵는다고 한다.⁵⁰²⁾

인용문에서 보듯이 중군 권재호와 우군장인 송 선달을 잡아들이고,⁵⁰³⁾ 그 자리를 권유하에게 대신하도록 했다가, 권재호가 실패하면 중한 벌을 받았다고 다짐할 때에 쓰는 ‘군령장’을 받았다는 기록은 안동의진에서도 그의 잘못을 추궁하고

500) 박주대, 『자상일월』 병신 2월 16일.

501) 김정섭, 『일록』 병신 2월 18일.

502) 김정섭, 『일록』 병신 2월 19일.

503) 송 선달은 안동의진의 우군장으로 태봉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로서, 전투에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는데 군령을 잘 지키지 않는다 하여 해직(汰去)되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섭은 그가 도망해온 것으로 의심했다. 김정섭, 『일록』 병신 2월 16일.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태봉 전투의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우선 대규모로 동원된 의병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일이 없는 오합지졸이었다.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벌어지는 공방에서는 어느 정도 대오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기와 개인적인 전투 능력이 우월한 일본군이 반격하며 거리를 좁혀오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열을 유지할 수 없었다. 한 부대만 후퇴해도 전체 의진이 무너지는 일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투를 목전에 두고 화맹의 중심에 섰던 안동과 예안의진의 지도부가 크게 바뀌었던 것도 효과적인 연합 작전을 어렵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소토진이 안동의진과 합류한 직후에 안동의진 대장이 바뀌었고, 화맹 직후 태봉 전투를 눈 앞에 두고 예안의진의 중군으로서 화맹의 주역이기도 했던 김석교가 교체되었다. 예안의 오천 마을 광산김씨 문중 출신이었던 김석교를 대신한 것은 영양 출신으로서 안동권에서 별다른 기반이 없었던 김도현이었다.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중군이 교체된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권세연을 유입시킬 것인가를 두고 영남 지역의 여러 의진이 갈등을 겪으면서 일정한 타협점을 찾았던 것처럼, 예안의진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연대론자인 김석교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⁰⁴⁾ 김도현은 전투를 앞두고 ‘내일 태봉의 일은 여러 군진(軍陣)이 이미 당일에 동맹(同盟)을 맺던 여러 장수가 아니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고, 소토진과의 연대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⁵⁰⁵⁾ 화맹에 적극적이었던 이들이 뒤로 물러서고, 심지어는 화맹에 회의적인 인물로 채워지는 마당에 연합 작전이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결국, 연합의진은 공동 작전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부족했다. 그리고 전투의

504) 진성이씨 문중이 주도하는 예안의진에서 김석교가 ‘文純是非’ 문제로 진성이씨 문중과 갈등하던 광산김씨 출신이었던 점도 경질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505) 김도현, 『벽산선생장의전말』, 22쪽.

실패는 모처럼 결성된 연합의진에 위기를 초래했다. 이후에 소토진과 안동 및 예안의진의 갈등, 영남의 여러 의진 사이에 나타난 여러 불협화음은 패전의 후유증이었고, 이 시기의 의병 항쟁이 드러낸 한계이기도 했다.⁵⁰⁶⁾

5. 맺음말

1895년 음력 12월 초, 제천의진과 안동의진은 비슷한 시기에 출범했다. 제천의진은 지평의 포군을 중심으로 하여 장담의 선비들이 지도부를 구성한 의진이었고, 안동과 예안의 의진은 지역의 명문가를 중심으로 출발한 것이었다. 이들은 통문과 격문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제천의진은 첫 전투에서 승리한 후, 포군들이 흩어지면서 지휘부가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다. 이 시기에 지휘부는 안동의진·예안의진을 비롯한 영남권 의진들과 공조하기 위하여 직접 내려가기도 하였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유인석에 의해 제천의진이 호좌의진으로 재편되면서 친일 지방관료를 처단하고 충주성까지 공략하여 기세를 떨쳤다.

안동의진은 출범한 직후, 경군의 출동으로 무력하게 무너지고 20일 이상의 침체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안동의진·예안의진·영천의진·순흥의진 등이 호좌의진에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영월 등 관동 지역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던 서상렬과 긴밀하게 접촉하였다. 호좌의진에서도 영남의 여러 의진들과 연대하여 의병 항쟁의 국면을 더 유리하게 발전시키려 하였다.

1896년 음력 1월 초에 안동을 점거하던 관찰사가 급히 도주하면서 안동의진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안동에서는 관찰사가 호좌의진의 소토진, 또는 재기한 예안

506) 태봉 전투 이후에 전개되는 의진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고에서 정리할 계획이다.

의진의 위세 때문에 도주했다고 여길 만큼 소토진에 대해 큰 기대를 했다. 얼마 후 예안의진 영천의진 천성의진 등이 안동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서상렬이 이끄는 소토진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연대를 추진하던 의진이었다.

소토진이 안동에 도착하기도 전에 연대 추진 세력은 일정한 타협을 거치면서 안동의진 내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었다. 천성의진의 주요 인사들이 안동의진의 핵심 보직을 차지하면서 안동의진을 재구성하는데 중심적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초기에 안동의진을 주도했던 호파 계열의 인사들 외에 병파 계열의 인사들이 합류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내려온 소토진과 안동의진의 대장이 만나면서 소토진과 안동의진은 을미의병기 최대 규모의 연대를 추진하고, 태봉 전투를 기획하는 중심에 서게 되었다.

소토진은 영남 북부 지역을 거쳐 안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연대를 거치면서 성장했다. 장담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문들과 영월 출신의 선비들 외에 영남의 영천안동 출신의 인사들이 소토진에 많이 가담하였다. 이를 통해 서상렬이 어느 지역의 의병 세력과 먼저 적극적으로 연대하였는지, 소토진의 내부 구성이 어떤 식으로 변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듯 서상렬은 영남 쪽 인사들까지 참여하는 소토진을 이끌면서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소토진과 영남 일곱 고을의 의진은 예천에서 회맹했다(02.10). 회맹을 앞두고 예안의진 쪽에서 영덕군수를 베고, 안동의진은 의성군수를 베었다. 이는 호좌의진이 내세우던 의병의 논리, 즉 ‘왜군수 처단’이라는 노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회맹의 자리에서도 예천군수를 처단하면서 타협 없는 투쟁의 맹세를 하였다.

2월 16일의 태봉 전투는 영남 일곱 고을의 의진과 연대한 소토진의 첫 번째 공격 목표였다. 연대를 이룬 여러 의진 의병들은 용궁산양을 거쳐 부첫살처럼 북쪽에서 태봉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하루 전날 의진이 움직임이 일본군 포착되고, 소토진이 패전하면서 사기가 저하되었다. 그리고 이튿날의 전투에서도 연합의진은 일본군을 깨뜨리지 못하고 패하여 흩어지고 말았다.

태봉 전투의 현장과 패전을 둘러싼 논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안천을 사이에

두고 진행된 전투의 현장을 오만분의 일 지형도에서 확인한 결과 일본군을 위협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아울러, 패전에 따른 원망이 전선을 먼저 이탈한 안동의진 중군에게 돌아가고 있던 분위기도 새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패전의 원인은 허술한 연합 작전의 결과였다. 회명을 전후하여 이뤄진 안동의진 대장과 예안의진의 중군이 교체로 인한 지휘 체계의 변동, 훈련되지 않은 의병들을 동원한 단조로운 공격은 일본군 병참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리고 패전은 이후 영남에서의 연합작전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짐이기도 했다.

- | | |
|----------------------------|--------------------------------|
| • 2014. 05. 07 : 논문투고 | • 2014. 06. 02 ~ 06. 10 : 심사 |
| • 2014. 06. 13 : 수정완료 후 제출 | • 2014. 06. 16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

참고문헌

- 국가보훈처, 『한말의병일기』(2003)
권제녕, 『義中日記』
금석주, 『日記』
김도현, 『碧山先生倡義始末』
김정섭, 『日錄』
_____, 『鄉會時日記』
김화식, 『昭義新編』
박정수, 『下史安公乙未倡義事實』
박주대, 『羅巖隨錄』
_____, 『渚上日月』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선인, 2013)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계(1)』(2006)
유인석, 『毅庵集』
이구영, 『(증보판)호서의병사적』(수서원, 1994)
이규명, 『記年』
이공연, 『乙未義兵日記』
이만도, 『響山集』
장익환, 『日記』
장충식, 『日記』
조선총독부, 『朝鮮五萬分一地形圖』
『司馬榜目』
『安東權氏僕射公派世譜』(1980)
『六義士列傳』
『乙丙隨得錄』
『日本公事館記錄』
『倡義見聞錄』

- 구원회, 『한말의 제천의병』(집문당, 1997)
- _____, 「을미의병기 호좌의진(제천의병)의 편제, 『조선사연구』 6(1997)
- _____, 「성재 유증교의 강학과 문인집단의 확대, 『역사교육논집』 44(2010)
- _____, 「한말의 의병장 경암 서상렬의 생애, 『지역문화연구』 12(세명대, 2013)
- 권대웅, 「을미의병기 경북 북부지역의 예천회맹, 『민족문화논총』 14(영남대, 1993)
- _____, 「을미의병기 안동유림의 의병투쟁, 『대동문화연구』 36(2000)
- _____, 「을미의병기 호좌의진의 영남지방 활동, 『지역문화연구』 7(세명대, 2008)
- 권영배, 『안동 지역 의병장 열전』(지식산업사, 2012)
- 김상기, 「1895~1896년 안동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항일투쟁, 『사학지』 31(1998)
- 김희곤, 「서산 김홍락(1827~1899)의 의병항쟁, 『한국근현대사연구』 15(2000)
- _____, 「예안 선성의병과 온혜마을 인물의 역할, 『안동사학』 11(안동대, 2007)
-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 I』(영남사, 2012)
- 이동신, 「예안지역의 선성의병(1895~1896) 연구, 『안동사학』 8(안동대, 2003)
- 조동걸, 「안동연합의진, 김도화의 태봉전투, 『경향신문』(1989년 5월 2일)

The Solidarity of Hojwa and Yeongnam Righteous Armies, and the Battle of Taebong in the Period of Ulmi Righteous Army

Ku, Wan-hoe
(Semyung Univ.)

The coalition of Hojwa and Yeongnam righteous armies was an attempt to get out of difficulties for both of them. Some righteous armies in Yeongnam province, especially Andong righteous army and Yeon righteous army, were going through a slump after being defeated by the troops from Seoul. Hojwa righteous army, thriving at that time, was asked to help them, which became an opportunity to unite both armies. Seo Sang-yeol, the leader of Soto army in Hojwa righteous army came to Yecheon from Kangwon province where he did active work, pledged the union of armies from seven Yeongnam counties for struggling, and promoted the Yecheon covenant.

After the Yecheon Covenant, Yeongnam righteous army took a firm struggle method of Hojwa righteous army, punishing pro-Japanese local governors. The joint fighting, however, was in trouble after the defeat of the allied righteous armies in Taebong. The defeat was caused by untrained army, change of leadership in Yeongnam righteous army after the Yeoncheon Covenant, and clumsy combined operations of the allied armies. This study investigates why the armies from different regions united, how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Andong and Soto righteous armies changed, and how the battle scene was. It also corrects the misunderstanding of the existing research that attributes the defeat to Hojwa righteous army.

Key words

: Righteous Army, Hojwa Righteous Army, Seo Sang-yeol, Andong Righteous Army, Yeoan Righteous Army, Battle of Taebong, Yeocheon Covenant